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핵 언론서 대대적으로 다뤄

글ㅁ박연숙(본지기자)

최근 결핵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동안 과거의 질병으로 잊혀지고 있었던 결핵 문제가 이처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갑작스레 결핵이 다시 출몰한 것일까?

그러나 결핵은 어느날 갑자기 출현한 병이 아니다. 자료에 의하면 결핵은 기원전 3000년의 미라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질병이 바로 결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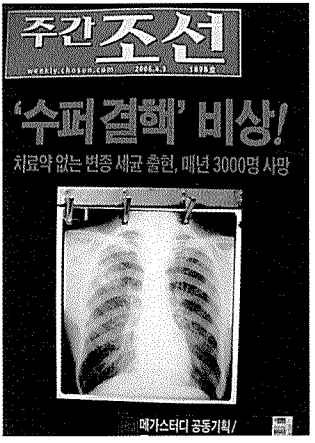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은 정복되지 못했고, 끈질기게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주간 조선(1898호)은 "수퍼 결핵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결핵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주간 조선은 다제약제내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결핵사망률 통계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결핵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약제에 내성을 보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을 '수퍼 결핵'이라 칭하며 결핵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결핵환자의 숫자나 연간 사망자수는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하루에도 700여명이 각종 원인에 의해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핵의 위험성은 그것이 '전염병'이라는데 있다. 그것도 공기전염으로, 발병을 한 후에도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알기 어려운데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어떠한 순간에도 결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SBS는 "결핵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전문가의



왼쪽 ‖ 결핵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룬 주간 조선 표지.
오른쪽 ‖ 많은 문학예술인의 지병이었던 결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입을 빌어 "PC방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생활이 늘어나고 다이어트 등으로 젊은 여성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젊은층 결핵 증가의 원인으로 소개하였다.

동아일보는 지난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책갈피 속의 오늘' 이란 코너를 통해 크리스마스 씰의 유래 등을 소개하고 로버트 코흐의 '결핵균 발견' 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사화했다. 로버트 코흐 이전에는 치료약제가 없어 '걸리면 죽음으로 직결' 되는 질병으로 인식되던 결핵에 대해 한 때 유전병이라고 여겨졌던 시기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에이즈와 결핵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등 결핵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KBS 〈취재파일 4321〉은 "뛰는 결핵, 기는 관리체계"라는 제목으로 12분간 결핵에 대한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마산 가포동에 위치한 국립마산병원을 찾아 흔히 '약만 먹으면 낫는 병' 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내와 딸까지 결핵에 걸렸다는 김모 씨의 사연을 방영했으며, 이밖에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결핵병원 등의 취재를 덧붙이면서 결핵퇴치를 위한 예산지원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절기를 맞아 감기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하면서, 감기 증상이 오래되면 결핵을 의심해보라는 건강기사도 많았다. 결핵이 감기처럼 흔한 질병은 아니지만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여 발병 후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핵에 대한 결핵 보도가 증가한 데는 결핵 자체의 심각성도 있겠지만, 그 밑바탕엔 '아니, 정말, 결핵이?' 하는 의구심도 깔려 있다. 그동안 결핵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무관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